

**전일동향**

전일대비 27.70원 하락한 1,456.40원에 마감

10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27.70원 하락한 1,456.4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8.10원 하락한 1,446.00원에 개장했다. 장 초반부터 저가 매수세 유입에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며, 1,462.40원까지 고점을 높였다. 이후 환율은 1,46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며, 1,456.4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16.4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92.17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증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46.00	1465.70	1446.00	1456.40	1458.50
엔화	1004.12	1012.60	980.42	1008.13	-	
유로화	1624.87	1637.17	1582.36	1631.18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1.53	-6.9	-15.41
결제환율(수입)	-0.97	-5.98	-13.46	-25.71

\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
\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**금일 전망**

미중 관세전쟁 격화에...1,45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4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56.40) 대비 4.00원 하락한 1,450.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미국 CPI 결과 및 미중 관세전쟁 등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미국 3월 CPI는 전월비 -0.1%로 '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. 근원 CPI는 전월비 0.1% 상승하며 예상치(0.3%)를 하회했다. 오스틴 굴스비 연준 총재는 관세의 부정적 영향에 따라 스테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. 또한 미국 백악관은 중국에 대해 펜타닐 관련 관세를 20% 추가하여 최종 관세율은 145%라고 발표했다. 이에 달러인덱스는 미국 물가 둔화 및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소식에 2.05 하락한 100.94로 마감했다. 뉴욕증시는 미국의 대중 관세율 재산정 보도에 전일의 급등분을 반납하며, 다우지수 -2.50%, S&P -3.46%, 나스닥 -4.31%를 기록했다. 한편 EU의 대미 보복관세 유예에 유로-달러는 0.0252달러 상승한 1.1200달러로 마감했다. 금일 환율은 글로벌 악달러 충격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수출업체 추격매도 등도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수입업체 결제 등 실수요 저가매수에 환율의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.

<b>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</b>	<b>1446.60 ~ 1457.40 원</b>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b>체크포인트</b>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3287.44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.00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39593.66, -1014.79p(-2.5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24.27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3703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